

탄자니아 8 월 선교소식

주님을 찬양합시다 ! (Bwana asifiwe !)

날씨가 많이 덥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선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하시며 기쁨으로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. 이제 곧 시원하고 사각사각한 계절 가을이 오겠지요? 이곳 사역지도 바쁨속에서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.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잊지않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이라 믿으며 8 월 선교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.

탕가 신학교 소식.

1. 신학교 방학 기간을 사용하여 총 동창회를 가졌습니다.

총 참석 인원은 78 명이었으며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장로교회 김용훈 담임 목사님 외 6 분이 오셔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. 오전과 오후 세미나, 저녁시간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. 그 밖에도 탕가지역 목회자 세미나(약 90 여명 참석)와 리빙 스톤 중학교 학생들 사역을 하셨습니다. 특히 신학교 동창회에 사용된 음식값을 열린문장로교회에서 부담해 주셨습니다. 그 밖에도 양쪽 학교를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 오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기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.

2. 리빙 스톤 중학교 소식.

오늘 2 학년들 탕가 도(주) 학력고사가 끝났고, 오는 10 월 7 일에는 국가고시가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부탁 드립니다. 내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기숙사 공사도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. 지금은 화장실과 샤워실 건물기초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. 동시에 5 명(가정)의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5 개의 one

room 건물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. 도서관 벽 쌓기 공사는 아직 쉬고 있습니다. 급한 건축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시작하려 합니다.

3. 동역자 소식

윤여환 선교사 부부, 김구회 집사님 모두 평안 들 합니다.

김구회 집사님은 9 월 중순경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.

박선교사의 건강도 좋습니다.

4. 태권도 사범 선교사역

어제(15 일)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워싱턴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최명철 집사님 내외분께서 10 일 일정으로 도착하셨습니다. 최집사님은 한국과 미국에서 30 년 넘게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신 태권도 사범이십니다. 지금은 선교를 위하여 모든 짐을 내려놓은 상황이며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 곧 준비하여 장기 선교사로 이곳에 오셔서 리빙 스톤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시기로 결정 하셨습니다. 이제 곧 선교사 비자를 받기위한 서류를 시작합니다.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선교회 모든 식구들과 협력해 주시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.

Mungu awabariki ! / 문구 아와바리키! (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)

2013 년 8 월 17 일 박 윤석 선교사 드림